



고흥군, 관광택시 11대 본격 운행

고흥군은 지난 26일 '고흥관광택시'를 가지고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흥 관광택시'는 소규모 여행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맞춤형 관광서비스로 이용시간과 탑승장소·코스구성, 관광지 해설 등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옵션들이 마련돼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요금제를 적용해 기본 3시간 6만 원에 시간당 2만 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관광객이 직접 코스를 구성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관광객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 고흥맛집 등을 요청하면 관광택시 기사가 직접 코스를 운행하면서 고흥의 숨겨진 명소와 이야기를 알려주고 오랜 택시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흥 여행의 텁을 알려줄 수 있다.

특히, 이날 고흥군은 '고흥관광 2천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관광택

발대식 갖고 택시 이용객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숨겨진 명소·맛집 등 택시기사 관광TIP 준비



시 기사를 '고흥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했으며, 관광택시 기사들은 이

용객뿐만 아니라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고흥관광을

보성군, 올해 '생활권 건강 휴양숲' 만든다

보성군은 연말까지 '생활권 건강 휴양숲'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생활권 건강 휴양숲'은 군민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숲속 휴양공간 조성사업이다.

군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군비 3억원을 확보하고 산주 등의 현장 조사, 주민 및 산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부터 별교을 제석산, 노동면 어등산 북내면 비봉산 문덕면 소재지 등 4개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별교을 제석산은 등산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등산로 중간지점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동면 어등산 정상에는 보성강의 전경을 바라보며 명상을 통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한옥정자와 편백나무·소나무 숲길을 만들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운동기구와 쉼터의자를 설치한다.

특히, '생활권 건강 휴양숲'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 약자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이 없는 '무장애 신책길'을 조성하며, 다양한 경관수와 야생화를 식재하여 건강과 운동 효과를 높이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김제동 청렴콘서트 성료

기관사회단체장·장애인·학생 등 1천5백여 명 운집

영광군은 1천5백여명이 운집한 영광스포티움에서 김제동 청렴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을 주제로 진행된 콘서트에는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장애인·학생·공무원 등 1천5백여명의 군민이 모여 토크 콘서트 1인자 김제동의 입담을 만끽하였다.

특히, 민주시민으로서 현정신에 기초한 정의롭고 청렴한 시민 정신을 최우선으로 꼽고, 촛불정국을 통해 구현된 시민정신이 꾸준히 계승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으며, 장애인·학생 등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릎을 끊고 강연을 하는 등 관객과의 소통

을 위해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 주어 관객들로부터 친사를 받기도 했다.

영광군은 정면에 VIP좌석을 배치하여 관계를 깨고 장애인·경로 우대석·임산부특별석 등 좌석을 우선 배정하여 김제동씨로부터 주인을 주인답게 대접하는 자치단체라고 칭찬을 받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사 운영이 크게 돋보였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김미선씨는 "김제동씨가 온다는 소식에 너무 반기워서 한시간전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 더욱 감동적이고, 힐링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의 이미지와 소통·힐링의 아이콘 김제동씨를 통해 청렴을 향한 군민의 소망과 열정을 확인했다며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 1등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광군의 '청렴문화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으며, 재미있고 즐기는 청렴교육 여건을 제공하고자 연극·콘서트, 팔든벌 등 다양한 포맷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김제동 청렴콘서트는 행사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관내 군민뿐만 아니라 광주·화순·함평 등 주변 시·군 주민들까지 참석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 속에 치러졌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충북·광주·광산구·보성군 등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하기도 하였다.

영광=서희원 기자

신안군, 농촌교육농장 2개소 운영

신안군 농촌교육농장이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바다도 즐기며 배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농촌교육농장은 2곳(청푸름 농장·신안바다정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자연환경의 강점인 바다, 갯벌 체험은 물론 1년내내 다양한 작물을 재배, 수확, 가공 등 아이들의 학교 수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푸름농장(대표 서명순)은 자동차로는 섬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으로 농장체험, 물고기잡이 체험, 쇠생활체험, 섬역사힐링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은 1박2일형 '섬팜팡'이 인기 프로그램이며 농촌 진흥청에서 품질인증을 받았다.

압해읍에 위치한 신안바다정원

(대표 김혜정)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교육농장으로 토미토 농장체험, 갯벌체험, 암화공예 프로그램이 인기이며 도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안군 농촌교육농장 방문하여 바다와 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박응식 기자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역량강화

함평군이 26일부터 이를간 군 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 법령의 제·개정 등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 평가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

을 갖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아직 이숙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이 업무여랑 제고를 위해 회당 70여 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26일 1차 교육은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27일 2차 교육은 7급 이하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을 위해 젠더다양성센터 안선덕 대표를 초빙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제적 의미, 정책개선 우수사례, 평가서 작성요령, 시스템 사용내내 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안 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생략하거나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차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젠더(gender) 미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꽃 키우며 농촌생활 맛 본다

장성군, 도시민 및 학생 대상 '농촌체험교실' 운영

장성군이 학생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초등학생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체험농장, 초등학교에서 원예를 주제로 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10여 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참여하는 체험교실은 오는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역민은 생활원에 실습에 중점을 두고, 도시민에게는 원예 실습과 함께 농산물을 수확하는 각종 농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교실 참여 신청은 오는 9월 읍면사무소나 광주지역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02.09~02.25(17일간)
• 패럴림픽 2018.03.09~03.18(10일간)

